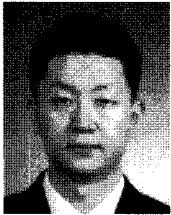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박진호 대표
메리트무역

한국의 수입계육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태국, 중국의 교역량이 크고 일본의 구매 패턴에 따라서 한국의 수입가격이 결정된다.

11월의 경우 중국산 가금육무역환경에 따라서 많은 희비가 있었던 한달이었다.

오랜 시간 정밀검역끝에 통관되었던 중국산 가금육의 뉴스와 반대로 11월 중반에 다시 인플루엔자가 중국본토에서 발견되어졌고, 하향곡선을 타던 태국산 가금육의 가격이 또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

11월 4주차 오퍼가격은 왕장각(Jumbo legs)'의 경우 톤당 1,000불대, 중장각²의 경우 1,100~1,200불대에 형성되고 있다. Leg Quarters³는 800대 후반에 오퍼가 나오고 있다. 수입업체 입장으로는 이러한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이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로얄스팩(200~220g/한조각 220~240g/한조각) 중장각은 수입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북채(Drum Sticks)의 경우 한국형 사이즈는 수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태국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서 한국의 업체들은 조용히 중국을 방문했다. 11월 사이에 중국을 방문한 업체만도 최소 5개업체 이상이다. 더욱이 부산에서는 중국산 정육(Bone Less Legs Meat)이 통관된 상태가 되었고, 중국과 구두로서 구매 계약을 했었다. 모든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을 통해 수익을 남기려고 기획을 했었고, 11월 중순 농림부 검역관들의 중국방문에 앞서 지정받은 중국의 가금육 공장들은 공



장 내 모든 위생시설들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본토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 한국 검역관들이 주재하던 상태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 인지라 중국측에서도 어쩔 수 없던 것 같고 한국정부는 2개월간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을 정지하였다.

일본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격보다 톤당 평균 200~300 불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어서 태국과 중국 수출 업체에게 매우 인기가 좋다. 중국산 원료육 닭고기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서 OEM(주무자 상표 부착방식)에 의한 가공육 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상품스팩에서부터 박스포장까지 일본이 원하는 디자인이 가능해 수입 후 바로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한국시장도 수년 후에는 이러한 체제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돼지고기 돈가스 보다 치킨가스가 유행할 것이라고 중국의 한 담당자는 강조하고 있다.

태국

11월 4주차 현재 많은 오퍼는 나오지 않는 상태이

다. 정육의 경우 1,700~1,750불대에 형성되고 있으나, 태국 수출업체의 판매능력에 따라서 1,500불 후반에서 1,600불 초반에 일시적인 오퍼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구매 패턴이 중요할 것이다.

부분날개의 경우 태국의 선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한 오퍼수량 또한 많지 않다.

결론

2003년 10월까지 약 70,000톤 정도의 수입 닭고기가 검역되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2001년 수준인 84,000톤 정도가 수입되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이것이 대량 적정 수입량이 아닐까 생각된다.

금년 닭고기를 대량수입한 업체들은 현재까지 일차적인 수익이 발생한 상태이며, 시장체제가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면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덤핑물량이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체제의 안정성이라고 본다. C

• 문의 : merittrading@hanafos.com

주

1. 왕장각(JUMBO WHOLE LEGS) : 닭다리로서 한 개당 300g 이상 중량이 되는 닭다리
2. 중장각(REGULAR WHOLE LEGS) : 닭다리 한 개당 180~240g 정도 중량이 나오는 닭다리, 엄장각이라고도 함.
3. 사각(LEG QUARTERS) : 닭고기를 4등분하여 생산되는 제품